

'정혜결사' 한국 간화선의 뿌리

"시대는 변할지라도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다." 고려불교의 극심한 부패상황에서도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태도는 확고했다. 당시 송가에 대해 환멸과 좌절감 그리고 수직심을 느끼고 있던 스님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참다운 자기 자신의 발견(깨달음)과 그것을 기구어(수행)하는 일이었다.



'지눌의 선사상' 김희성 지음

그 의지는 속세를 떠난 첫 출가에 이어 두 번의 두문불출 정진과 이상적 출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정혜결사운동을 단행했다는 점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희성(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가 내놓은 <지눌의 선사상>(소나무)은 이러한 지눌의 삶과 선사상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전한다. 이 책은 우선 지눌의 선사상 조망에 앞서 역사적 배경과 자료를 토대로 한 지눌의 전기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눌 선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한다.

선교대립 등 심각한 고려불교의 상황 속에서 등장한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 '선주 교종적 선교회통론'을 전개한다. 선은 부처님의 뜻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입(말씀)이라는 지눌의 선교일치의 정신은 조선 중기 서산대사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 배경·자료 바탕 지눌의 선교회통 배허

글쓴이는 "지눌은 지적 알음알이의 병통(如解病)에 대해 염려하고 화두를 참구해 깨달음에 이르는 간화선을 인정하지만, 무조건 간화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눌 선사상의 선 사상에서 돋보이는 특징이다.

지눌의 선은 교(敎) 지향적이며 지적 성격이 강하다. 불법에 대한 참된 언어적 가르침인 여실언교(如實言敎)가 바로 그것이다. 지눌은 불법에 대

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에 열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처럼 선사하면서 '교를 통해서 마음을 깨달으려는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두선은 뛰어난 근거를 갖춘 수행방법이란 것도 그 이유다.

또한 지눌은 자신의 이러한 사상적 성취를 정혜결사 운동을 통해 실현해 옮겼다. 수선사에서 벌인 이 운동은 스님이 바랐던 이상적인 수행 공동체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사상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기된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지눌의 선사상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성철 스님의 비판의 핵심이 지눌 사상의 일부분인 문오점수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철스님이 증시하는 대해 선사의 간화선 전통도 한국불교의



◇보조국사 지눌 진영(동화사 소장). 경우 지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눌에 대한 논문은 많았다. 하지만 지눌의 전 생애와 선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작업은 고이종익 교수의 <고려 보조국사 연구>(프린트본, 1974)이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점 또한 이 책이 이룬 값진 성과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a@buddhopia.com)

새로나온 책

▲다비와 사리(글 박경준, 사진 송봉화) =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절대적 생명과 자유의 경지인 열반. 이 책은 그곳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다비식과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가 전해진 발자취와 그 의미를 살핀다. '다비란 무엇인가', '다비란 무엇인가', '사리의 세계' 등을 사진과 함께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적고 있다. 값 4천8백원.

▲부처와 중생은 한생각 차이라는(성재도 역음, 남다름 좋은남) = 흔히 학식과 인격이 높아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표로 삼을 만하다고 말한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마음, 수행, 행복 등 7가지 큰 주제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축장수필>, <지문수행록>, <육방예경> 등 명저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값 5천5백원.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이중호 지음, 김치라인 = 우리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과학적으로 재조명한다. 책은 고인돌, 비파형 동검, 단군 등을 담은 고대문화를 비롯해 과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 크게 4부로 나눠 문화유산이 어떤 면에서 세계 최고인지를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문화인류학이나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과학자의 눈으로 살핀 문화유산'이란 점이 특징. 값 1만3천원.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농사꾼 이야기(이영문 지음, 양판) = '태평농법'이란 독특한 농사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영문 씨의 자연 인간 환경이야기. 한 농부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관한 통찰과 전인적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 단풍기', '자연, 최고의 향연제', '토종이 변하고 있다' 등 30개의 작은 소재로 구성. 부록 '태평농법의 이해'도 실려 있다. 값 7천8백원.

▲꽃, 강에 지다(최낙건 지음, 다우 = 왜장을 깨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 그는 유생의 딸로 태어났지만 가난으로 인해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다. 사대부의 정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민초이자 의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논개. 이 소설은 논개의 사랑과 우국 충정만을 서술하고 있지만은 않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명과 한이 힘의 원천임을 들추어낸다. 값 7천5백원.

논쟁 불붙는 도솔 고전강의

동양 철학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킨 철학자 도솔 김용옥(사진). 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한 여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자를 웃긴 남자>(자인) 두 권을 내놓은 이경숙(명필) 씨가 바로 그 주인공. 그는 "도솔이 전국민이 보는 TV에 나와서 고전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삼류 개그쇼를 한판 대린 거다"며 들머리에서부터 도발적인 언어로 비판을 시작한다.



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과 시각이 '수준급의 경지'에 있다는 점이다. 불교계에서도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옥 씨가 펴낸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 <금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이 씨는 도솔이 첫 문장부터

했다. <노자를 웃긴 남자>와 <도솔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화

경강해> 등에 대해 여러 학자나 불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지난 해 2월 번상설 씨가 도솔의 불교관을 비판한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었다>(시공사) 이외는 그를 정색하고 글로써 비판하는 불교계의 학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깊이 있는 도솔의 불교관이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교가 왜곡되고 있는 데도 뒷집만 지고 있는 것은 불교학자로서의 게으름이 아닐까.

김중근 기자

이경숙·서지문·김진석 등 조목조목 도발적 반론

<도덕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이 씨는 도솔이 첫 문장부터

문향 그윽한 침공선사 문집

운제스님 역 '침공집'

부처님이 푸른 허공 속에 홀로 서셨으니/ 이곳이 영산(靈山)의 큰 법회/ 오늘날 다행히 만나 묘한 말씀을 듣게 되어/ 백천만겁의 오랜 티끌인연을 씻게 되네. -괘불을 두고 지음(題掛佛-)



이 남긴 유일한 저서로 원 목판본은 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했던 선암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집은 침공 스님이 입적한 12년 뒤에 제자들이 흙여져 있는 글들을 모아 상 하 두 권으

로 펴낸 것이다. 상권에는 오언절구 28수, 칠언절구 45수, 오언율시 8수, 칠언율시 32수가 들어 있고, 하권은 '친한 벗에게 드리는 글' 등 문학적 성취는 27편의 산문이 수록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침공 선사의 행장과 사상, 그리고 <침공집> 원문도 함께 실려 있다.

침공 스님은 법호에 나타난 것처럼 일상생활도 관공체를 배고 주무신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불교학은 물론 세속의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문학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울긴이는 "침공 선사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문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스님의 근본사상은 참선에 있다"고 밝혔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한중광 지음

'경허, 부처의 거울...'



경허 스님의 평전 <경허, 길 위에 큰스님>이 <경허, 부처의 거울 중생의 허공>(한길사)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증보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허 스님이 석왕사를 떠나 북쪽으로 간 이후의 생활을 적고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 한중광 씨는 지난 99년 초판을 낸 이후 경허 스님이 북쪽으로 간 까닭과 그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글쓴이는 1905년부터 평북 강계군 중남면 한전동 김탁(1872~1941) 씨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그의 손자 김형국 씨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北으로 간 경허 스님 만행 생생

경허 스님은 박난주란 이름으로 임시정부 초대 교육부 차장, 의정원 평안도 대표 등을 역임한 김탁의 집에서 살면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어 지도하는 한편 김탁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과 만나 시를 읊으며 불법을 전한다.

이밖에도 이 책은 경허 스님이 강계를 떠나 갑산으로 향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그곳에서 스님은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장터에서 서민대중을 교화하는 등 자유자재한 방편행을 펼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예시야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디자인하우스
2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	제임스 로웰	시공사
3	선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4	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정견	벗더의마을
5	불여를 가을 겨울	황영희	이레
6	참회 회회기도법	김현정	효림
7	산사에서 부처는 평지	명준	좋은날
8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화	법공양
9	나는 누구인가	오리진	정화
10	부처님게 제를 털면	스티븐 테일러	여시아문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철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칭찬·내면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행한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는 문자를 열어 보십시오. 기쁘게 공양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 Ⅰ 업상과 참회
-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Ⅲ 절을 통한 참회
- Ⅳ 참회염불
-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Ⅵ 이참법과 배승유적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살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